

광주 8월들어 50~60대 확진자 급증

전달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
20대 37% 여전히 가장 많아
가족간·사적 모임 감염 늘어

지난달만 해도 20~30대 젊은 층 감염이 주류를 이뤘던 광주에서 이달 들어 50~60대 이상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름 휴가와 대학교 방학시즌을 맞아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가족간 감염에 이어 중년층 감염으로 번지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특히 최근 중년층의 낮 시간대 여성 사우나 내 모임과 식당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양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당분간 개인 간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들어 코로나19 확진

자는 모두 178명이다. 연령대별로 20대가 65명(37%)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50대(36명)와 60대 이상(25명)도 61명(34%)에 이른다. 지난 달에는 20~30대가 전체 확진자(469명) 중 50%를 차지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37%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50~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19%에서 34%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달 호프집, 주점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지만, 최근에는 가족간 감염에 이은 사우나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지난달 이후 광주 확진자 647명 가운데 107가 족 273명(42%)이 가족 간 감염 사례였다. 최근 수도권 유입 음식점·여성 사우나 관련 감염자도 22명에 이른다.

일부에선 50~60대 확진자 증가에 따라 돌파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50대 중 상당수는 현재 백신을 접종 중이거나 접종 대상

이고, 60대도 1차 접종만 마친 경우가 많아 접종효 과를 기대할 만한 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전파가 빨라지고 돌파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장소, 세대 구분 없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재학생을 제외한 대입수험생 22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다.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 4주 후로 자동 예약된다.

또 기존 1차 접종자의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백신 2차 접종일정은 일부 조정된다. 대상은 16일 이후 mRNA백신 2차 접종 예정자로, 접종간격이 기존 4주에서 6주 이내로 변경된다. 단 고교 3학년과 교직원, 기타 대입수험생, 입병장병은 기존 4주 간격을 유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0일 오후 광주 동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백신 접종률 전국 첫 50% 돌파

1차 누적인원 98만명 넘어서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166일 만에 전남 도내 1차 접종 누적인원이 93만명을 넘어서 전국 에서 처음으로 접종률 50%를 넘겼다.

도내 22개 시·군 중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등 10곳은 접종률 60%를 넘겼다. 22개 시·군 접종센터 일제 개소, 어르신 접종 셔틀버스 운영,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접종 독려 등 선제적 예방 접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 50.3%이며, 접종 완료 비율은 20.1%다.

전남에선 1~2분기 접종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과 보건의료시설 관계자 등 도민 75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3분기까지 도민 150만 명 접종, 접종률 81%를 목표로 예방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경제활동인구인 18~49세 대상 백신 접종 사전예약 10부제도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 백신접종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시군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는 것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참여 등 적극적인 방역 실천으로 전남이 가장 먼저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일 오전 현재까지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26명의 신규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총 2193명으로 늘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취약지역 이동 선별검사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시동

전남도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10일부터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간이 검사를 하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50%를 돌파하는 등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감염자가 10명 내외가 나오고, 돌파감염까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역에서 선제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 관광지, 외국인 종사 사업장, 유흥시설 밀집 지역 등 다중집합장소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유형의 사업장을 우선 찾아간다. 검사를 바라는 주민은 누구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역 주력 산업 위기때 정부 선제 지원 가능

‘지역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가결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가 확산하자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사후 지원하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특별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했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위기 초기’ 단계에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침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법안은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금감면·보조금·산업임대 지원 특례조치 등 지원 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은 대체로 특정 산업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하위 법령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지역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16일부터 본훈련

북한 김여정 “배신에 유감” 담화

국방부 “동맹차원서 결정할 문제”

연락사무소·군 통신선 오후 끊겨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이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바로 담화를 내고 남측과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공식 훈련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합참 주도의 연습이지만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이에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본 훈련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연합 방

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오후 군 통신선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에는 남북 간 개시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이와 관련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오는 오후 4시 정기통화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지난달 27일 전격 복원된 이후 14일 만에 다시 불통 상황을 맞은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최근 양 정상 간 진서 교환 과정에서 확인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향한 의지가 존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는 16일 본훈련 시작 직전에 시기와 규모 등을 공동발표하고 관례에 따라 북한-유엔군 사령부 직통전화로 북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은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송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010-9989-7465
기 도 희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1년 8월 9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3,800,000,000원을 금 8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액면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300,000주를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서 액면가로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380,000주를 8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 감소공고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익률 제출할것을 이에 공고함.
2021년 8월 11일
농업회사법인 효진팜 주식회사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면 두류산길 377-103
대표이사 최유진

산행안내
8월22일(일)
▲광주서산악회 8월22일(일) 정복
충북, 괴산, 문경&백두대간 대야
산 정상 비로봉 선유동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6:00, 동야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
제남일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